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많은 격려와 더불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방침에 따라 5월 마지막 주까지 점심, 그리고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가집니다.
4. 2020년 '축복의 가정심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방 받으시는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토요일(5/23) 청소담당은 키르키스탄 목장(신동기 집사), 그 다음 주 토요일(5/30) 청소담당은 청년부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 교회서 가지는 점심 식사는 미리 공지한 대로 없습니다. 대신 김화현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17일	5월 24일	5월 31일	6월 7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이현호 집사	오진석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김금옥 권사
주일식사담당	김화현 집사 가정	험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로렘 목장 (정진숙 권사)	아가페 목장 (김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2020년도 축복의 가정심방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95번(가정주일) 다같이
*경배찬송	15장(55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57장(통 189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동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호 8: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다시 빛으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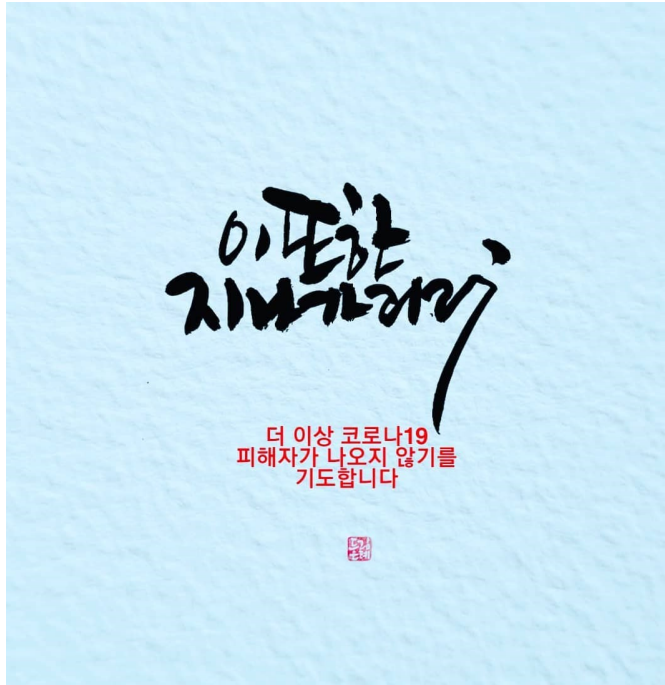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⑧ 허영진 목사
 롬 3:20-27 ‘하나님의 사랑’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09)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초여름의 기운이 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순환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맛보는 흥겨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필립 안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예수는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시간과 장소 또한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날 장소와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셨을까?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주다. 물론 주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도라면 누구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시점과 장소는 책박하기 이를 데 없었기에 다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앙은 그저 날로 먹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는 결코 그저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철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하면 된다.'는 공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저 되는 게 없음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철저히 알게 하신다. 즉, 성도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대부분 더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참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됨이 응답된 것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일까. 이런 저런 힘겨운 경험들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참된 꿈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 나이기에.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며,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보다 고상한 고민을 갖고 살도록 하신다. 어디 그 뿐이라. 주님은 환경에 우겨 찌름 당하는 성도에게 늘 소망의 표시가 되어 주시고,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 보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이끄신다.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고상한 인생이 되도록 빚어지는 과정이다. 나의 시각을 조정하는 하루, 참된 꿈의 원천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Written by 허영진